

A Challenge about Loveless Knowledge 사랑 없는 지식에 대한 도전 (고전 8:1-13)

A Parasitic Problem

Our family enjoys going for bush-walks....occasionally we encounter leeches.

If any of you have had a leech attach itself to you — you'll know how unaware you are of their presence...until you happen to look down & see them stuck to you — full of your blood. When you pick them off, they leave a trail of blood over your foot or leg.

Leeches are parasites....that is, they attach themselves to something or someone healthy + take from you — harm you — in order to flourish. The picture of a leech helps to understand what had happened to another group within the troubled Corinthian church. This group had allowed a kind of parasite to attach itself to something very good & had not only begun to impair them in their walk with Christ....but was particularly beginning to do serious harm to others on the walk.

The problem with parasites is that often you don't even know that they're there — as they rob you & drain you they do all kinds of harm. What was the parasitic problem for the Corinthians & what solution does God's word offer?

The Parasitic Problem & Summary Solution (1-3)

V1, 'Now concerning food offered to idols: we know that all of us possess knowledge. This knowledge puffs up, but love builds up.'

Here he uses the same phrase to reintroduce another matter that was on their minds.... Food offered to idols & the knowledge surrounding that subject. Paul says, 'this knowledge puffs up.' We saw that same word translated 'puffs up' 3/52 ago with the challenge of imposters where members of the church had inflated egos against one other as they followed the puffed up — arrogant imposters.

기생충과 같은 문제.

우리 가족은 산속으로 산책하러 나가는 것을 좋아하는데...가끔 산속에서 거머리를 보게 됩니다. 이 거머리가 사람 몸에 붙게 되면...직접 눈으로 발견하기 이전까지는 이 거머리가 몸에 붙어 있는 것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거머리를 우리 몸의 발이나 다리에서 떼어내면 피를 빨아먹던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머리는 기생충으로, 자신의 생존을 위해 건강한 누군가에게 들러붙어 그 사람의 것을 빼앗아 감으로 해를 입힙니다. 이런 거머리의 비유는, 당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린도 교인은 어떤 좋은 무언가에 이런 거머리와 같은 것이 들러 붙게 함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방해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었습니다.

기생충의 문제점은, 이런 기생충이 우리 몸에 들러붙어 해를 입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식하지 못함에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겪고 있던 이런 거머리와 같은 문제점은 무엇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어떤 해결책을 제시 하십니까?

기생충과 같은 문제 그리고 해결책 (1~3 절)

1 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에 바쳐졌던 음식과 이런 문제를 둘러싸고 있던 지식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 가운데 바울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이 교만에 문제는 이전 구절에서도 언급되었고,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을 추종함으로, 교만함으로 가득 찼었음을 보았었습니다.

We saw it 2/52 ago where the Corinthians weren't just tolerating immorality — but were puffed up — proud in their acceptance of it. The contrast here to this conceited knowledge is love, that builds up. Putting that together with this issue....we see is that pride was the parasite that had attached itself to knowledge to become *loveless knowledge*.

Paul shows the problem + solution....v2, 'If anyone imagines that he knows something, he does not yet know as he ought to know.' It's not knowledge that's the problem — but the person who thinks he knows *something* while remaining ignorant about what he really ought to know. Pride had attached itself to knowledge....

Paul now gives the contrast to the one with proud knowledgev2, 'But if anyone loves God, he is known by God. 'we might have expected Paul to have said 'if anyone knows God' — but he puts the emphasis on love for God & from that, being known by God. It's a brilliant way to counter the problem....for this group in the Corinthian church...conceit was united to their knowledge to render their application of knowledge, 'loveless'. So Paul stresses the true disciple's love for God.....& rather than their knowledge of God — God's personal — relational knowledge of them.

It's a challenge to us.....is my knowledge of God infused with love for the good of others or has it become a tool to inflate my own ego? Now to Paul's detailed correction of their 'short on love' knowledge....

고린도 교인들은 교회 안에 이런 문제를 용인할 뿐만 아니라, 이를 용인함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는 이런 거짓된 지식에 대비되는 것은, 덕을 세우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바로 이 “교만함”이 기생충의 문제와 같았음을 보게 됩니다...그래서 이런 기생충은 “지식”이라는 것이 들러붙어, 사랑 없는 지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문제에 해결책을 나타냅니다...2 절에 말씀하길,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는 지식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알아야 하는 것에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교만함이 지식에 들러붙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런 교만한 지식과 대비되는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3 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 주시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알아주신다는 사실에 강조점을 둡니다. 이는 이런 거짓된 교만함이 지식에 달라붙어, “사랑 없는”지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훌륭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제자의 모습에 대해 강조하는 것입니다...관계적 지식인 사랑을....

이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하나님에 대한 나의 지식은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한 사랑으로 스며 들여져 있나요? 아니면 그저 나의 자의를 높이기 위한 수단인가요? 이제 바울은 이들의 사랑 없는 지식에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The Correction (4-13)

- Yes, be Strong in the Truth (4-6)

V4, 'Therefore, as to the eating of food offered to idols, we know that “an idol has no real existence,” and that “there is no God but one.” For although there may be so-called gods in heaven or on earth — as indeed there are many “gods” and many “lords” — yet for us there is one God, the Father, from whom are all things and for whom we exist, and one Lord, Jesus Christ, through whom are all things and through whom we exist.'

We can read between the lines to see that the knowledgeable converts clearly understood the kind of truth from Isaiah 44...that idols are nothing but constructs of fallen humanity. It seems they were familiar with Deuteronomy 6:4....the start of the ‘Shema’ — the Hebrew word for ‘Hear’ ‘Hear O Israel, the Lord our God, the Lord is one.’

In their coming to Jesus.....they trusted Him as Lord & Christ...Paul affirms them in these central truths — his encouragement is to be strong in the truth. Though there are a myriad of false gods before which people vainly bow as ‘lords’. There is only one true God before whom we bow as Lord.

Here, as Paul affirms truth, He guards us against some who want to say that the problem is knowledge or a ‘dogmatic commitment to truth’ ... Never retreat from pursuing Biblical truth

— to study God & His glorious attributes...

— to marvel at the profundity of our one true God who is Father, Son & Spirit

— to know that the gods of our age are false

But alongside such a noble pursuit....in humility....we need to bear in mind that

• But, Love the Weak (7-10)

V7, ‘(However), not all possess this knowledge. But some, through former association with idols, eat food as really offered to an idol, and their conscience, being weak, is defiled.’

해결책.

• 진리 안에서 굳건해지기 (4~6 절)

4~6 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 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은 타락한 인간이 만든 형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이사야서 44 장으로 부터의 진리를 이해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신명기 6:4 절의 말씀에도 익숙해 보입니다...이 말씀은 쉼마 라는 단어와 함께 시작하는데, 이는 “들으라”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들이 예수님께 옴으로...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믿었으며...바울인 이 중요한 진리를 그들에게 단언하며...이런 진리 안에서 굳건하기를 격려합니다. 비록 수많은 거짓된 신들은 많은 사람이 그들의 주인으로 섬길지라도, 오직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참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말씀은, 지식이나 진리에 대한 헌신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우리를 보호 합니다... 그렇기에 성경의 진리를 쫓음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 하나님과 그의 영광된 속성을 공부하며
- 하나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심오한 경이로움을 느끼며.
- 이 시대의 신들은 모두 거짓된 신이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 그러나 연약한 자를 사랑하라 (7-10 절)

7 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In ancient Corinth, there were at least 17 different Greco-Roman gods including the cult of Emperor worship...within those temples were altars to other gods. There were also mystery cults from Egypt....In

one ancient fragment the writer said, 'I pray to all gods.' By God's grace some of the Corinthians had turned to Christ from such idolatry. Paul calls the other, knowing members to be considerate of their new spiritual family who because of their pre-Christian pasts were spiritually vulnerable

Again, Paul acknowledges the plain truth, with another 'yes I agree...'

V8, 'Food will not commend us to God. We are no worse off if we do not eat, and not better off if we do.' That is true & the knowledgeable were right in their understanding....though Paul drills down on the problem in order to correct it with another caution.... V9, 'But take care that this right of yours does not somehow become a stumbling block to the weak.' Paul now commands this group to watch themselves....that in their zeal to claim their privilege of freedom they were at risk of causing weaker siblings to stumble.

It seems the know-it-alls wanted to celebrate their knowledge — their liberty in Christ...surely His lordship meant that it was their right to feast on meat in any place? Maybe they thought that if their weaker spiritual siblings could see them untroubled in a temple surrounded by idols that it would have had a strengthening effect... Paul warns them instead that the opposite was the case...V10, 'For if anyone sees you who have knowledge eating in an idol's temple, will he not be encouraged, if his conscience is weak, to eat food offered to idols?'

Such temples had the practice of sacrificing animals in an effort to appease the particular idol....to bring about favour from the god. Some parts of the animal were cooked & offered to the idol....some of the meat would be shared in a banquet...the rest would go to the market for sale.

고대 고린도에는, 로마 황제 숭배를 포함한 17 개의 다른 그리스-로마 신들이 있었습니다...이런 신들을 섬기는 신전 안에는, 다른 신들을 향한 제단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집트로부터 온 미스터리의 이단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몇 고린도 인들은, 이런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서 그리스도께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런 취약한 환경 가운데 개종한 새로운 영적 가족들을 배려 가운데 대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바울은 명료한 진리를 인정합니다...8 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사는 것도 아니니라”*...(이 구절을 통해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과 함께 9 절에서 바울은 이런 자유함 가운데 먹는 문제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또한 지적합니다. 9 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바울은 이들이 자유로움 가운데 누리는 특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기에, 이들에게 자기 자신을 살피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많은 것을 아는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로움을 이해하기를, 어느 장소에서든지 고기를 즐겨 먹을 수 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거리낌 없이 우상으로 둘러싸인 신전 안에서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본다면, 이런 대담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믿음 약한 자들에게 격려를 해줄 수 있으리라 생각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이런 모습에 대해 10 절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당시 신전 안에서의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면, 신들에게 동물을 잡아 희생 제물로 바쳤고, 희생 제물로 바쳐진 동물은, 요리되어 잔치 음식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에 내다 팔렸었습니다.

The 'knowing party' it seems — by their knowledge — thought that they had authority to eat in the banquet setting that followed the sacrifices. They thought they were immune to danger...Paul critiques such knowledge next week in the challenge about idolatry...but for the moment he focuses on the impact on those with a weak conscience who happened to see their so-called enlightened church family feasting with idolaters...

They weren't to let their knowledge be the undoing of the vulnerable. Paul's great encouragement is to be strong in the truth...but to be loving to the weak.

Though we don't have obvious pagan shrines in 21st C Melbourne...as there were in 1st C Corinth...as there are in many parts of the world today... Idolatry is nonetheless rampant... The false gods of illicit sex & indulgence, material wealth & worldly power are all around us.

Those of us who perhaps are tempted to pride ourselves on our depth of theological understanding do well to stop regularly to ask ourselves the question, 'is there any practice in which I'm engaging that might risk emboldening a brother or sister to go against their conscience?'

The moment we stop asking such a question might be the time pride has attached itself to knowledge to make it loveless. Even so....God won't let us simply ask ourselves & quickly move on....He wants us to consider the impact — to be horrified by the effects of loveless knowledge...

당시 무엇을 '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지식적 신념 가운데, 우상 숭배에 바쳐졌던 음식을 나누는 잔치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바울은 이들의 이런 지식을 꾸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의 이런 모습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말미암은 그들의 이런 행동이, 믿음 약한 자들을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절 가운데 바울의 걱려는, 진리 안에서 굳건하되 믿음이 약한 사들을 사랑하는 전제하에 굳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고린도와 같은 신전 안에서 우상 숭배의 모습을, 현 21 세기 멜번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상숭배는 현 사회에서도 만연합니다...잘못된 성관계와 탐닉, 물질적 부와 세상 권력이라는 거짓 신이 우리 주변에 만연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깊은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잠시 멈춰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잘못된 영향력을 미쳐, 혹 형제나 자매가 자신의 양심을 거슬러, 잘못된 길로 가도록 격려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이런 질문 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는 우리의 교만함이 신학적 지식에 기생하여, 우리의 신앙을 사랑 없는 신앙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사랑 없는 지식의 파괴력을 인지하기를 원하십니다.

• + Be Horrified by the Effects of Loveless Knowledge (11-13)
V11, '(And) so by your knowledge this weak person is destroyed, the brother for whom Christ died.'

The true knowledge that there are no gods except the one true God & Lord lead to the bold Corinthian practice of feasting in the visible temple banquet areas. Excavations of pagan temples of ancient Corinth show places where diners would have been readily visible...

The justification was easy... 'we know the truth.'

The pressure would have been great.... ‘eat with us or suffer loss of friends & finance.’
The damage was damning — the weak brother — for whom Christ died, destroyed.....That is, a conscience utterly compromised & their faith left in tatters as they fell into some kind of syncretistic accommodation of the idols alongside Christ.

v12, ‘Thus, sinning against your brothers and wounding their conscience when it is weak, you sin against Christ.’ To sin by wounding a weak brother or sister’s conscience....Paul says is nothing less than to sin against Christ. The way we treat our spiritual siblings in Christ is an expression of our worship of Christ.

When we wound a vulnerable brother or sister by something we’ve said or done.....Just when we might be tempted to think, ‘he’s just got to grow up’ or that ‘she’s being too sensitive & I’ve done nothing wrong’ We’re to be horrified by the effects — the spiritual damage to a precious brother or sister purchased by the death of Christ — is sinning against the Lord Himself at one & the same time

We’re all at risk of wounding another’s conscience when pride attaches itself to knowledge...The Lord would have us humble ourselves & repent of our pride that thinks our knowledge & practice of it are automatically always right. As we do....the Lord’s great goal is that we would grow in love for Him & one another in our application of knowledge....

- 사랑 없는 지식에 대한 파괴력을 인지하라. (11-13 절)

11 절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며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지식은, 몇몇 고린도 교인들이 담대히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게 하였습니다. 당시 고대 고린도 지역의 유적을 살펴보면, 진치 음식을 먹는 장소는, 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로 인한 압박은 매우 컸을 것입니다...”우리랑 같이 먹던가 아니면, 친구를 잃고 경제적 손실을 감당해라”... 이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피해는 매우 컸습니다...이는 그들의 양심이 타협되었음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다른 우상을 섬기는 신앙적 혼합주의에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것입니다.

12 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래서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의 양심을 이렇게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영적 형제자매를 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표현방식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으로 연약한 형제자매에게 상처를 주며, 생각하기를, “이런 일을 통해 강해지는 거지, 혹은 그저 저 사람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일 뿐, 난 잘못하게 없어”라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말과 행동의 영향력에 대해 두려움 가운데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왜냐하면 이렇게 연약한 형제, 자매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으며, 이런 이들에게 죄를 지음은, 그리스도에게 또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식에 교만함이 기생하게 될 때,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위험에 있습니다...주님께서는 우리를 겸손케 하시며, 우리의 지식과 행동이 항상 옳다는 교만한 생각을 회개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 이런 회개를 통한 주님의 목적은, 우리가 지식을 통해 우리 주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케 함에 있습니다.

v13, ‘Therefore, if food makes my brother stumble, I will never eat meat, lest I make my brother stumble.’

Though Paul, more than any Corinthian, knew the truth, his love for the weak drove him to counsel the knowledgeable to be horrified at the effects of loveless knowledge — to stir them to repentance & renewed love in their understanding.

For Paul....it was a willingness to forego meat for the sake of others. For the Corinthians....it would be to follow Paul’s lead for the love of the vulnerable

There may be something that the Lord is calling you to forego for the sake of helping & not hindering your brother or sister in-Christ’s growth.....But we will only be in a place to do that as we seek knowledge of God to grow in our love for Him & others....to be horrified by any damage we might unwittingly inflict on others — that would be to sin against the Lord Himself.*

Love to Know...Know to Love

Is love or pride attached to my knowledge of God?

One will see God’s glory in building up our family in the gracious — ‘other person-centred’ outworking of such knowledge. The other will suck the spiritual life out of us & leave a trail of damage all for the sake of an ego.

May the Lord move us by His Spirit that we would increasingly love to know Christ crucified for one another...so that we would know to love Him & each other in all we do.

13 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은 그 어떤 고린도 교인들 보다, 진리에 대해 더욱 잘 알았던 사람으로서, 사랑 없는 지식 가운데 행하는 몇 고린도 교인들 충고하였고, 이는 그들이 회개하며, 사랑에 대한 이해 가운데 새롭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 고기 먹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고, 고린도 교인들 또한,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기 위해 이런 바울의 모습을 따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를 돕고, 이들에게 방해물이 되지 않기 위해, 주님께서 여러분의 행동 가운데 하나를 포기하기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우리가 이런 행동을 포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행동이 다른 이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하나님과 이웃 사랑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 지식을 구할 때, 우리의 교만한 행동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기 위해 사랑하며...사랑하기 위해 알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지식에 사랑이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교만함이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사랑이 붙어 있다면 이는 타인 중심적 생각 가운데, 은혜 안에서 공동체를 세워 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며...교만함이 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기생충과 같이 타인의 영적 생활을 빨아들여, 그 사람에게 피하만 입힐 뿐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움직여서, 타인의 유익을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더더욱 알아가기를 사모하며...그래서 우리가 그를 사랑하기를 알며,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기를 알기 바랍니다.